



(1) 한국화가 설 박



“열정은 작품을 만드는 물감 작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바보 같은 짓을 두려워 말라...실험하고 모험하고 놀고 빈둥거리면서 실패도 해보라-작업실에서의 외로움을 견뎌라!”-젊은 예술가에게(아트북스) 중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고집스러움’이 때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눈부신 젊음을 고스란히 예술에 걸기 때문이다. 그들은 빈판길에 부서져 있는 연탄재처럼 아직은 주목받진 못해도, 무언가를 위해 뜨겁게 타오른 존재였기에 결국엔 찬란한 작품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미술과 공연, 문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고집스럽게 열어가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본다.

물들인 종이 찢어 붙인 독특한 산수화 주목

방콕·중국 초대전 성공...“해외 데뷔 목표”

묵으로 나뉘 종이를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독특한 산수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머니 속 송곳 마냥, 그녀의 열정은 눈 밝은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봤다.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T Art center’ 관장 일행이 광주 의재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에 반해, 지난해 12월 중국 초대전을 열게 됐다. 이 전시에서 그녀는 중국 유명 전통악기 연주자에게 가로 14m의 대작을 판매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태국 방콕에서는 대인시장의 대인공간인 ‘미테-우그로’ 작가들과 기획전을 열고, 국내외 작가 7명이 모여 만든 예술 밴드 ‘머지’ 공연도 함께 펼쳤다.

“그림만 그릴 때는 몰랐는데, 중국과 태국에서 전시를 열어보니 내 작품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 수 있었어요.”

그녀 작품의 가능성은 젊은 작가답게 발상의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먹은 종이에 자연스럽

게 스며드는 게 한국화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종이를 찢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스미움을 포기했다. 대신, 찢긴 흔적은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어냈고 번짐이 없는 여백의 명징함도 얻어냈다.

그녀의 작업의 한계는 어쩔, 한국화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붓과 먹이라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녀의 작업 목표다. 이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의 교류와 해외 여행이다.

“규칙적이지 않고 무자비하고 거칠게 오려진 화선지 조각조각을 차곡차곡 쌓고 산세를 만들어 가며 나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과 흡사해요.”

지난해까지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3번은 오전 내내 어린이집의 특기적성교사 일을 했다. 생활비는 젊은 작가들의 좌절었지만, 작품을 만드는 또 하나의 물감이기도 했다. 예술가에게 결핍과 상처는 작품을 대하는 처절함을 가르쳐주는 가장 진절할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을 하는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고, 전시회 약속도 잡지 않았다. 중국 전시에서 작품을 팔아 여유가 생기기도 했지만 작업에만 모든 것을 걸 생각이다.

또 작업실도 국내외 작가 40여 명이 모여 ‘날것의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인시장으로 옮길 작정이다. 여름에는 유럽도 다녀올 생각이다. 중국 화단을 경험한 뒤 작업에 대한 목표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서양화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 실험, 미디어아트 등을 각국을 돌며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다.

참새 연작으로 유명한 아버지 박태후 화백의 후원도 든든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작업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나도 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박 화백은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작업을 통해 얻은 ‘쌀’을 귀하고 고맙게 여기며, 끊임없이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언제...”라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그냥 평생 작업만 하는 작가로 남는 게 꿈입니다. 한동안 붓을 놓고 방향도 하고, 직장에도 다녀봤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앞으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글=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니평주기자 mjna@kwangju.co.kr

■ ‘설 박’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갈고 붙이고 사색하고... 작품은 내 인생의 축소판

▲**먹**
먹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검은색을 띠는 미술재료 중 하나였다. 그저 “단순히 한국화에서 쓰는 재료 중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먹을 갈 때 나는 향이 꼭 내가 좋아하는 박하사탕향 같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얀 화선지와 물과 먹이 만날 때 매번 다른 색,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이녀석에게 매력을 느꼈다.

천의 색을 가지고 있는 먹의 신비한 매력에 빠져 진행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내 작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먹은 나의 영원한 탐구대상이자 친구고 애인이 되었다.

▲**클라주**
한국화 재료와 기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하지만 동양적인 느낌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새롭게 표현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클라주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즉흥적으로 찢어내고 계속 덧붙이는 방법이 나에게 매우 흥미로워서 발전시키게 되었다. 불규칙적으로 찢어낸 화선지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고 화판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며 붙이는 과정은 마치 이 작품에 인생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나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화선지를 붙여나가야 되는 과정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지침서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혼자 떠나는 여행**
가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어디가 되든 며칠이 되든 나에게 조금이나마 선물같은 시간이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복잡한 것들은 잠시 쉼게 쳐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걸음 닿는 곳으로 향하는 여행은 내가 해쳐 나가야 되는 삶의 작은 축소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고 정리하게 한다. 나를 한 번 더 다잡게 되고 격려하게 된다. 내가 작업을 하는 과정도 혼자하는 여행과 비슷하다. 남의 도움을 받을 바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손끝에서 결정되기에 행동 하나하나 고민 하나하나에 신중해진다.

▲**설 박은?**
전남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중국 베이징 798 예술구 ‘T Art center’에서의 개인전을 열고, 광주비엔날레 기념특별기획 디지털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영아티스트 전시 공모’에 선정됐다.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작살차
친환경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